

2009. 11. 24

글로벌 불황 이후 철강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

산업지역 Fellow
나병철

Executive Summary

글로벌 불황 이후 철강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

- 금번 글로벌 금융 위기 및 불황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공조 강화 및 공적 자금 대량 투입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조기 회복 중에 있으나 향후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

- 과거의 위기와 불황 때의 사례로 볼 때 향후 세계 경제 및 산업 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 가능성

- 향후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7대 이슈로 구분 가능

- 각국의 부양 조치는 향후 철강경기에 긍정적·부정적 요인으로 동시 작용할 가능성
- 공급과잉 억제를 위한 재감산 등의 공급 조절이 실패할 경우 가격 하락 가능성
- 수요산업의 구조변화로 철강재 사용패턴 및 조달체계 변화 예상
- 메이저사의 지배력 강화 및 철강사간 원료 확보 경쟁 등 조달환경 악화
- 철스크랩의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발생 및 가격 상승 전망
- 글로벌 경제 및 산업의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
- 포스트-교토 체제 등장 등 온난화 가스 감축문제의 현실화 압박

-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도 7가지로 구분 가능

- 해외 광권 확보 및 지분 투자 강화 등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방안 강구
- 녹색성장 지향의 산업 트렌드 변화에 사전 대응 필요
- 2010년 이후 아시아 내 판매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기반 강화
- 철강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 추진
- 수요산업과의 경쟁력 하락 방지 위한 공동 노력 등 Win-Win 지향
- 친환경 및 자원 절약형기술 개발 강화 및 적극적인 도입
- 내실, 협력 및 이해관계자 배려 등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



Contents

목 차

I.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극복 과정의 특징	1
II. 향후 글로벌 철강산업의 7대 이슈.....	2
III. 한국 철강산업의 7대 과제.....	9
IV. 결론	14

I.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극복 과정의 특징

□ 지난 400년간 글로벌 금융·경제 위기 발생 48회, 20세기 이후 발생은 12회로 그 중 세 차례의 충격적 위기 발생

- 1929년 대공황: 1차 세계대전 이후 공급과잉 심화로 발생하여 2차 대전 시 귀결됨. 당시 미국 주식 가격 88% 폭락
 - 은행 1만개 도산, 실업률 25%, GDP 성장률 13% 기록
- 1970년대 오일쇼크: 중동전 및 석유 금수 조치로 발생, 에너지 저소비 구조 및 금융·정보혁명으로 이어짐. 미국 주식 가격 45% 폭락
 - 스태그플레이션(1975년 세계 경제성장률 1.9%, 물가 13.2%) 유발
- 금번 불황: 금융 위기에서 촉발되었으며, 미국 주식 가격 53% 폭락
 - 향후 세계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를 유발시킬 전망

□ 금번 위기·불황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 공조 강화 및 공적 자금 대량 투입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 중

- 전세계 2조4,700억 달러(G20은 1조6,000억 달러)가 투자 중이며, 내수 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 및 건설·전략산업에 집중 지원
- 전세계 경기 부양 자금의 24%가 SOC 분야에 투자되어 철강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남

〈G20 국가의 지출측면 경기부양정책 내용〉

인프라 투자	중소기업 및 농업 지원	사회 안전망	주택 및 건설 지원	전략산업 지원	기타
15건	4건	16건	10건	6건	7건

- 당초의 예상 및 과거 위기 대비 조기 회복 중에 있으나 불확실성 또한 상존
 - 미국 재정 적자 확대, 중국 부동산 등 자산 거품 문제 및 출구전략 시행 여부 고민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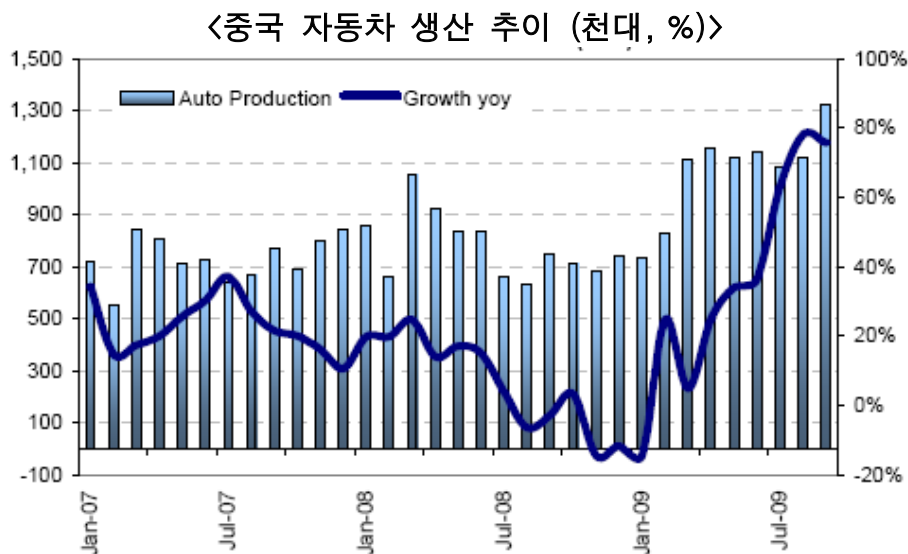
Ⅱ. 향후 글로벌 철강산업의 7대 이슈

□ 금융 위기 및 불황 이후 글로벌 철강산업이 직면하게 될 7가지 이슈 중 제① 이슈는 ‘금번 위기가 향후 철강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’임

□ 내수 진작을 위한 각국의 대규모 부양 조치는 향후 철강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
○ 중국의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소형승용차 취득세 인하(10%→5%), 농업용 3륜차의 소형트럭·미니승합차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 및 도시지역 노후 자동차 폐기·교체 시 보조금 지급은 연간 400만대의 생산 증가 효과 발휘

○ 미국의 노후차 폐차 지원 프로그램 효과도 70만대



자료: Morgan Stanley, 2009.11.2

○ 중국 농촌지역 노후 가전 제품 교체 시 13% 보조금 지급, 도시지역 노후 제품 폐기 시 10% 보조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연간 9,000만대에 이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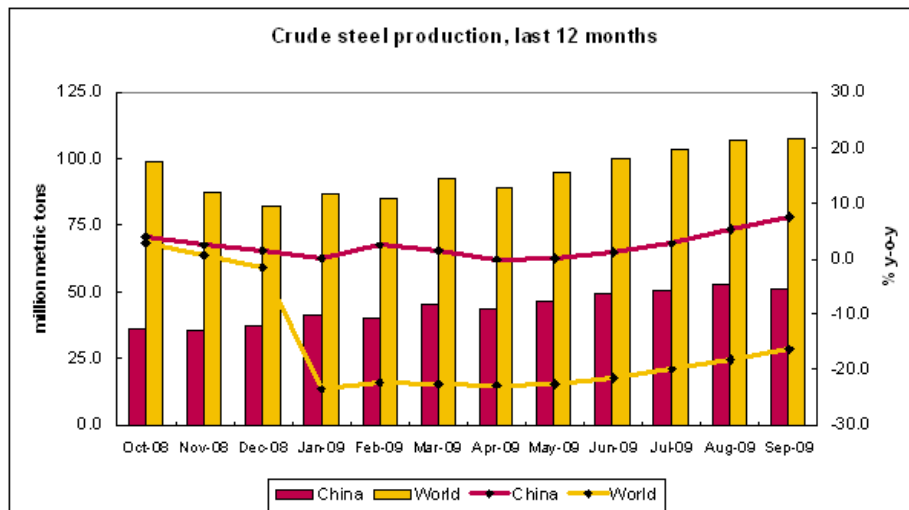
□ 각국 부양 조치가 2009년 철강경기 회복에 기여했지만 미래 철강 소비를 조기 소진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도 고려해야 함

-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 부양 조치 중 45%는 인프라 분야 투자임.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존 계획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철강재 소비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

□ 제② 이슈는 ‘철강 업계의 공급 조절 기능이 재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’임

□ 글로벌 철강 업계는 위기 발생 징후의 사전 인지는 늦은 반면, 감산 등 대응 조치를 신속·과감하게 취함으로써 성공

- 글로벌 철강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사들은 신속하게 감산 체제로 전환하여 고로 가동 중단 등 공급과잉 억제 조치를 시행
- 그러나 각국의 경기 부양 조치의 효과로 철강재 소비 회복 기미가 보이자 2009년 하반기부터 철강사들은 가동을 중단했던 고로 등 생산 설비를 경쟁적으로 재가동함으로써 생산량이 급증 추세
 - 2008년 10월 이후 9개월만인 7월부터 월간 1억 톤 생산 체제로 복귀



자료: WSA, 2009.11

□ 수요 회복세를 능가하는 증산은 판매 경쟁 심화 및 가격 상승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

- 이미 시장에서 철강재 가격 회복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감산 기능이 재작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
- 중기적으로는 선진국 및 중국의 과잉·노후 설비의 폐쇄 추진, 위기 이후 중단된 설비 신증설 계획의 재추진 및 구조 조정의 진전 여부가 철강경기를 좌우할 전망

□ 제③ 이슈는 ‘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의 구조 변화 가능성’임

□ 대표적인 철강재 다소비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철강산업에 파급될 전망

- 미국 Big3의 붕괴 여파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- 이미 美 크라이슬러 경영권이 유럽의 피아트로 이전되었고, 폭스바겐은 포르쉐를 인수하였으며, GM의 오펔, 포드의 볼보도 매각 추진 중
- 특히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
 - 중국의 완성차 업체는 130여 개에 달하는데, 정부는 200만대 규모 회사 2개~3개, 100만대 규모 회사 4개~5개 통폐합할 계획

□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체간 글로벌 주도권 확보경쟁 및 시장 니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

- 특히 유럽계 업체가 상위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, 이미 피아트가 6위로 부상하였고, 포르쉐 인수를 통해 2위로 부상한 폭스바겐은 2018년까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 목표 설정
- 2009년 상반기 업체별 자동차 판매량 추정
 - ①도요타(356만대)/ ②GM(355만대)/ ③폭스바겐(310만대)/ ④현대자동차(215만대)/ ⑤포드(214만대)/ ⑥PSA(159만대)/ ⑦혼다(159만대)/ ⑧닛산(155만대)/ ⑨스즈키(115만대)/ ⑩르노(110만대)
- 인도 타타자동차 ‘나노’ 모델의 성공과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요타, 피아트, GM 등의 초저가 미니차 출시 경쟁도 전개 중

□ 향후 철강재 사용 패턴 및 조달 체계의 변화도 예상됨

- 미니자동차 비중 증가 시 철강재 소비 원단의 감소 및 강재 구매 시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 증대 예상
- 유럽계 자동차사의 부상으로 철강사-자동차사 간의 기존 거래 관계 (Line up)의 변화 가능성

□ 제④ 이슈는 ‘철강원료 조달 환경의 변화 가능성’임

□ 호주의 BHPB와 리오 틴토의 철광석 부문 합작 사업 추진은 원료 업계의 몸집 불리기 경쟁을 촉발시킴

- 2008년 BHPB 주도로 합병을 시도했으나 무산함. 그 후 2009년 6월 합작 사업에 합의한 후 정부 승인(2010년 중반 예상) 대기 중
- 합작 사업 추진 배경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시너지(유동성 증대, 통합 생산 관리, 인프라 공유 등으로 100억 달러 효과) 확보
- 향후 서호주 지역 철광석 광산 통합으로 브라질의 베일(Vale)을 능가하는 초대형 공급사로 부상할 가능성
 - 2008년 기준 철광석 업계 위상(해상 물동량): 베일 247만 톤(29%)/BHPB 135만 톤(16%)/ 리오 틴토 188만 톤(22%)

□ 원료탄 업계의 재편도 예상 됨

- 스위스 원료기업 엑스트라타(Xstrata)는 경쟁사(BHPB-리오 틴토간 합작)의 움직임에 대응 및 비용 절감(10억 달러) 효과를 전제로 앵글로 아메리카(Anglo American)에 대한 합병을 제안
 - 앵글로 아메리카는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합병 거부
- 원료 업체 및 관련 국가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원료탄 업계의 재편 방향이 변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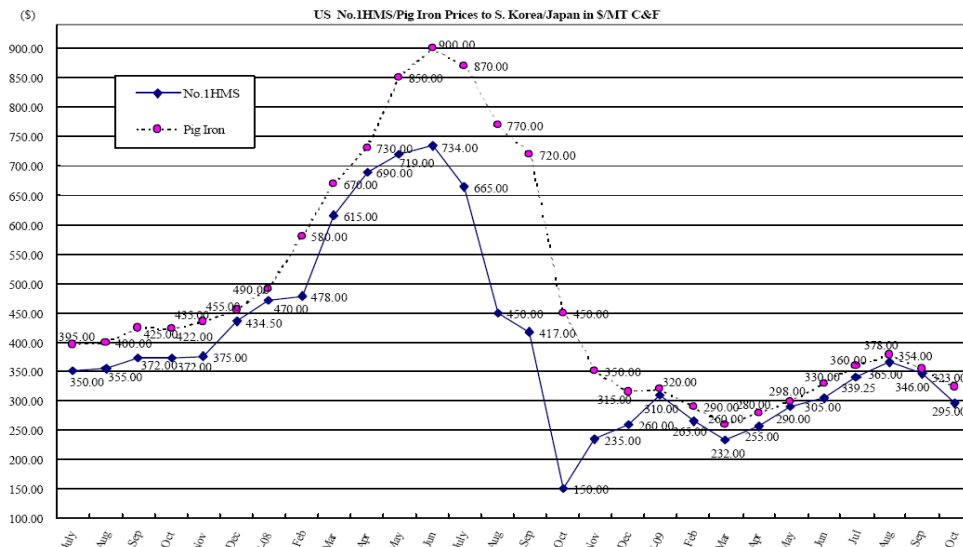
□ 원료 업계 재편은 메이저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가격 결정 시스템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가격 상승과 변동폭 증대로 이어질 전망

- 향후 철광석 업계는 Big3에서 ‘Big2 + 중견 업체’ 구도로 변하고, 원료탄 업계는 BHPB 중심 ‘1강’ 구도에서 ‘3강’ 구도로 변화 예상
- 국제 원료 가격 결정 시스템은 당분간 기존의 벤치마크 시스템과 현물 가격 시스템이 공존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벤치마크 시스템이 소멸할 전망

□ 제⑤ 이슈는 ‘철스크랩의 중요성 증대 가능성’임

□ 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철강경기, 철광석 가격 및 투기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는 구조

- 최근 가격 추이를 보면 금융 위기 여파로 2008년 하반기 이후 급락했던 가격이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등락 중



자료: Tex report Vol. 41, No.9844, 2009.11.5

□ 향후 국제 철스크랩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할 전망

- 세계 철스크랩 수요는 2008년 6억7,000톤에서 2014년 7억9,000톤으로 연평균 2.8%씩 증가할 것으로 전문 기관(WSD)은 전망
 - 그러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 영향을 감안할 경우, 철스크랩 수요 증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

- 또한 최근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철스크랩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중국 철스크랩 수입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들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여 1월~9월 누계 수입량 1,119만3,000톤(전년비 389% 증가) 기록
- 따라서 향후 국제 철스크랩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전망

□ 제⑥ 이슈는 ‘산업의 메가 트렌트 변화 가능성’임

□ 금번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‘경제 체질 변화와 신성장산업 육성’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 강화 중

- 미국: 기존 금융 및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제조업 및 수출 산업도 적극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
 - 지식 및 R&D 기반 첨단산업 육성, 제조업 경쟁력 탈환을 위한 기술표준화 등에 주력하되 특히 클린 에너지 및 미래형 자동차에 관심 집중
- 일본: 아시아를 내수 시장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 중
 - 아시아 시장으로의 제조 기지 이전 및 기술 이전을 통하여 아시아 역내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한 전략 추진 중
 - 또한 제조업 기반 위에 그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전지, 고연비 자동차 및 절전형 가전 제품 개발에 주력 중
- 중국: 균형 성장과 대외 영향력 확대가 목표
 - 자동차, 철강 등 10대 산업을 진흥시키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
 -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 강화 중
- EU: ‘그린 르네상스’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전개 중
 - 경기 부양 예산 중 58%가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으며, 특히 가전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 환경 관련 기준 강화 중

□ 이러한 각국의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지도의 변화와 철강재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

□ 제⑦ 이슈는 ‘지구 온난화 문제의 논의 가속화’임

□ 최근 교토 체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한계 문제 극복을 위한 2012년 이후 ‘포스트 교토 체제’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

- 배경: 선진국들의 1990년 대비 2008년~20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고,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%만이 감축 대상이어서 새로운 지구 차원의 감축 체제 마련 필요에 공감대가 형성됨
 - 배출권 거래제 등 교토 체제의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

□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선진국의 2020년 감축 목표 설정, 국별 의무 체계 및 부문별 감축 방식 등 교토 체제의 보완 문제

- 2007년 12월 ‘제13차 발리회의’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를 전제로 코펜하겐회의(2009.12.15)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정

□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감축 목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

- EU: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% 감축 목표와 함께 강제 할당에 준하는 교토 체제 강화를 선호
- 캐나다: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원단위 18%, 2020년까지 매년 2% 감축 목표
- 일본: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% 감축 목표(신정부는 1990년 대비 25% 감축 주장)로 자주 행동 계획 및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시행
- 미국: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% 감축이 목표(상원 계류 중)이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세 도입을 강조

□ 2009년 15차 코펜하겐회의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 합의는 힘들 전망이며 향후 정부간 협상체인 UN을 중심으로 논의 전개 예상

- 글로벌 경제 위기, 美 상원의 행정부 견제, 중국 정부의 보수적 입장, 선진국-개도국간 지원금에 대한 합의 지연 등이 원인

Ⅲ.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

-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철강산업이 고려해야 할 7가지 과제 중 제① 과제는 ‘철강 원료의 안정적 조달’임
- 철강 원료 중 대부분 100%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 및 원료탄은 향후 가격이 고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특히 철광석은 중국의 수입이 계속 급증하는 현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
 - 2009년 1월~20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5억1,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37% 증가하였으며 연간 6억2,500만 톤에 달할 전망(이는 전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1/3을 초과하는 수준)
 - 원료탄의 경우도 전통적인 수출국이던 중국이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전망
- 각국 정부 및 철강 업계 간 안정적, 경제적인 원료 조달 경쟁이 심화될 전망
 - 일본: 정부, 종합상사 및 철강 업계의 공동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조달에 주력
 - 중국: 정부와 공동 또는 철강 업계 단독으로 대규모, 무차별 물량 공세를 통한 원료 확보에 주력
- 우리 철강 업계도 해외 광권 확보, 지분 투자 강화 등 개발수입 비중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
 - 아울러 기타 부원료 및 부존의 편재성이 크고 수출국 정책에 대한 민감성이 큰 희토류 금속 등은 정부 비축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함

-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해외 스크랩 안정 확보 방안, 국내산 스크랩의 수집 및 유통 체계 개선, 품질 확보 등을 위한 공동 노력 절실
 - 2008년 수입 의존도 25%, 2009년 1월~10월 수입 6,600만 톤(-2.6%)

□ 제② 과제는 ‘녹색성장 지향의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’ 하는 것임

□ 향후 산업 메가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‘녹색성장’이 될 것이며, 관련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

-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차세대 ‘그린카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전개 중
 - 자동차산업 메가 트렌드: 가솔린 자동차→하이브리드 자동차→전기 자동차→연료전지 자동차로 발전 예상
-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모델 개발 강화 및 출시 등에 전력 투구 중
 - 르노, 닛산, 포드 등 각 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두 주자인 도요타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한 전기 자동차 개발 전략을 강화 중

□ 국내 조선 업계도 수주 경쟁 심화 및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중

- 중국 조선산업의 정부 지원 수혜 및 저가 수주 전략에 대응하는 한편, 향후 전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에 따른 화석 연료 운송량 정체와 선박 수요 증가 둔화 가능성에 대응 중
 - 비즈니스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해상 풍력발전기 사업에 국내 대형 조선회사가 모두 참여 중

□ 수요산업의 녹색성장 지향은 철강재의 사용 패턴 변화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

- 전기 자동차: 기존 자동차의 구조, 부품 생략(연료통, 배기 가스 계통 불필요) 등 근본적인 변화 및 신소재 필요 등 자동차산업의 개념 변화 초래 예상

- 조선산업: 조선용 철강재 수요 증가의 둔화 불가피 및 해상용 풍력발전기용 철강재 수요 증가 기대

□ 제③ 과제는 ‘수출 기반을 확대’하는 것임

□ 2009년 1월~9월 국내 철강재 수출량은 1,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6.4% 감소

- 국가별로는 중국향(+32%) 및 말레이시아향(+5%)을 제외하고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
- 수출 감소 이유는 금융 위기 여파로 각국의 철강재 소비가 감소한 데 기인
- 참고로 같은 기간 중 국내 철강재 수입은 1,4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1% 감소

□ 향후 철강재 수출 여건도 단기간 내에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

-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 경기의 단기간 내 회복은 기대 곤란
 - 국제철강협회(WSA)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철강재 수요는 12억600만 톤으로 금년대비 9.2% 증가하겠지만 200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
- 중국 조강생산량 증가 추세 및 주요 도시 재고 물량의 지속 증가로 2008년 8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철강재 수출이 2009년 6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함으로써 주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됨
- 국내 철강 업체의 신증설 후판 설비 및 일관제철소의 준공으로 수출 대상 물량 증가 불가피
- 기타 원화 가치의 강세 등 수출 여건의 악화 가능성 등 상존

□ 2010년 이후 동남아 등 주력 수출 시장에서 한국, 중국 및 일본 등 3국 철강 업체간 시장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

- 중국 제품의 Over Flow 불가피,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

□ 제④ 과제는 ‘철강산업 글로벌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’임

□ 국내 시장 여건 변화, 원료 조달 여건 악화 및 무역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것임

- 국내 시장 성장잠재력 악화: 철강재 소비 증가세 둔화, 수요 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, 해외 건설 수주 증가 및 국내 철강 업체간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 등
- 무역환경 변화: 각국간 FTA 확산, 주기적인 통상 마찰, 개도국의 철강 수요 증가에 대응한 철강재 자급도 제고 정책 추진 등
- 원료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 증대: 중국의 자원 독식, 인도의 원료 구매력 증가 및 자원 메이저의 영향력 확대 등
- 따라서 국내 철강 업체는 시장 성장잠재력이 크고 원료 부존이 많은 국가로의 진출을 지속 모색해야 함

□ 제⑤ 과제는 ‘철강 수요산업과의 Win-Win 지향’임

□ 2009년 1월~10월 국내 제품별 수출 실적을 보면 철강재 소비와 연관성이 큰 제품의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됨

- 자동차 및 가전 제품 등의 수출 감소율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 실적 대비 상대적으로 큼

구분	경공업	화학품	기계류	가전제품	반도체	승용자동차
전년비 감소율(%)	-11.7	-20.6	-29.0	-19.8	-15.4	-33.8

- 수출 대상국 경기 침체와 수요 산업 수출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
 - 국내 제조업 對중국 경쟁력 약화 추세(KIET): 기술 격차 4.0년(2004)→3.8년(2007)

□ 향후 수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

- 고객 요구 조건 즉각 반영, 유통 단계 축소 및 고객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필요

□ 제⑥ 과제는 ‘친환경·자원절약형기술 개발 및 적극 도입’임

□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의 컨센서스 확산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감축 요구의 회피는 불가능

- 향후 환경문제 해결 여부가 철강산업 지속 성장의 관건으로 등장
- 일본 정부, 온실가스 발생량 삭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확대, 화력발전소 발생 이산화탄소의 포집·저장기술 적용, 수소환원제철법 도입, 에코자동차 확산, 고단열 주택 보급 확대 등에 주력할 예정
- ArcelorMittal,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8% 삭감 계획

□ 향후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의 발전 방향은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→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기술→저탄소형 혁신 철강기술 임

- 따라서 국내 철강 업계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

□ 제⑦ 과제는 ‘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’하는 것임

□ 향후 철강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 여건은 크게 변화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실정

- 기업 내 패러다임: 핵심 역량 집중, Cash 중심 현금 흐름 경영 등 ‘내실’ 지향
- 기업간 패러다임: 공동 개발, 공동 마케팅, 상생 경영 중시 등 ‘협력’ 모색
- 기업-사회간 패러다임: 고객, 직원, 사회에 대한 책임 및 장기 이윤 추구 등 ‘이해 관계자’ 배려

□ 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 능력도 기업의 경쟁력 및 생존 조건의 하나로 등장 예상

기업의 사회적 책임(환경경영, 윤리경영, 상생경영 등)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될 전망

IV. 결론

□ 글로벌 불황 이후 철강산업의 경영환경은 ‘경쟁 심화’와 ‘패러다임 변화’로 요약 가능

- 글로벌 경제 및 철강경기 불확실성 상존으로 공급과잉 재연 가능성이 큼
- 철강 원재료 조달환경 변화 및 각국 정부·철강 업계의 원료 선점 경쟁 가속
- 자동차 등 수요 산업 구조 개편이 철강재 수요 구조 변화 요인으로 작용 예상
- 녹색성장, 지구 온난화 해소 방안 강구 등이 철강산업 지속 성장의 장애 요소로 등장

□ 국내 철강 업계는 기초 경쟁력(원가 및 기술 경쟁력) 강화의 기반 위에 다각적인 대응 활동 전개 필요

- 철강 원료의 안정적·경제적 조달 방안 강구로 국내 철강 업계의 취약점 보강
- 철강재 수출 확대 기반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속 추진
- 철강 수요 산업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수요 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
- 친환경 관련 기술의 개발·도입 강화 및 미래 경영 트렌드의 변화에 사전 대응 필요

- ◆ 나병철 (e-mail: bcna@posri.re.kr)
- ◆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.